

‘메이저 4강 신화’ 정현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韓 세계랭킹 이렇게 빨리 깨질 것이라 생각 못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파...톱10 진입 욕심나”

한국 테니스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메이저대회 4강 신화를 일군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58위)은 겸손하면서도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겠다는 포부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정현은 2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현은 세계랭킹 4위 알렉산드르 즈베레프(21·독일), 전 세계랭킹 노바 조코비치(31·세르비아·14위)를 연달아 격파하며 4강 진출 신화를 일궜다. 4강에서는 ‘황제’ 로저 페더러(37·스위스·2위)와 꿈의 대결도 펼쳤다.

발바닥에 심각한 물집이 잡힌

상황에서도 강적들을 연파하는 정현의 모습에 국내에는 ‘테니스 열풍’이 불었다. 정현 신드롬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현의 호주오픈 4강 진출을 보며 박찬호의 한국 선수 첫 메이저 리그(MLB) 진출, 박세리의 첫 LPGA 투어 우승, 피겨여왕 김연아의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 박태환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떠올린 이들도 적지 않다.

정현은 “너무 훌륭한 선수들과 비교해 주시더라. 그 선수들을 롤 모델로 삼고 좋아해야 할 것 같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조코비치와의 16강전을 떠올리면서도 “2년 만에 같은 코트에서 대결하게 된 것 자체로 영광스

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표를 보는 질문에는 당찬 포부가 담긴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ATP 투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우승한 후 메이저대회 시상대를 목표로 밝힌 정현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날을 최대한 앞당기고 싶다. 메이저대회 시상대에 서고 싶은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랭킹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정현은 “한국 선수 최고 세계랭킹 기록이 이렇게 빨리 깨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록을 깰다. 그러다보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톱10” 진입에 대한 질문에도 정현은 “욕심이 난다. 모든 선수들이 높게 평가해 준 만큼 그 선수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진했다.

날 한국에서 테니스 인기가 올 리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했던 정현은 꾸준히 성적을 내 ‘테니스 열풍’이 계속 이어지게 하고 싶다는 욕심도 내비쳤다.

그는 “여태까지 테니스가 비인기 종목이었지만 앞으로 저를 포함한 모든 테니스 선수들을 따라 인기 종목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스키협·빙상연, 무능행정에 희생당한 평창 스타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라는 이름의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다. 개막을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약재들이 쏟아져 나왔다. 막바지 컨디션 조율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중요

국내 알파인스키 1인자 정성현, 지력 출전권 확보불구 대표팀서 탈락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빙상연맹 실수 자각 못갠채...우여곡절 평창행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코치에 폭행당해...연맹, 허위 보고·은폐 논란

한 시기여서 더욱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대회 참가가 불거졌던 선수도 있다. 하루를 바라보고 4년을 고생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스키협회는 24일 기술위원회를 통해 알파인스키 국가대표를 선발했다. 그러나 대표팀 9명 가운데 4명만 선발되고 5명이 탈락했다. 협회가 참가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9명 중 4명만 출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정성현(28·홍천군청)이 좌절의 아픔을 겪었다.

정성현은 국내 알파인스키의 1인자다.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 회전과 복합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서 알파인스키 대표팀으로 소개됐지만, 불과 하루 만에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스피드스케이팅의 노선영은 선수촌에서 나오면서 논란의 주인공이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 나설 예정이던 노선영은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 자체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다행히 러시아 선수 2명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예비 2순위에 있던 노선영이 평창행에 이름을 올렸다. 노선영은 올림픽 출전을 두고 고심하다가 협회의 사과로 마음을 돌렸다.

쇼트트랙의 간판스타 심석희(21·갤럭시아스M)는 대표팀 코치에게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떠났다가 복귀했다. 금메달이 유력한 선수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팬들은 분노했다.

실상가상으로 폭행 당시 연맹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지난 16일 심석희는 폭행을 당하고 선수촌을 나왔다. 그러나 연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수촌 방문을 앞두고 ‘심석희가 독감에 걸려 격려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결국 연맹은 가해자인 코치에게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큰 잔치를 앞두고 대한스키협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뉴스스

정현, 세계랭킹 수직상승 29위...한국 테니스 사상 최고

종전 58위서 경총...2007년 이형택 36위 기록 깨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2·한국체대)이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역대 한국인 최고 세계랭킹이다.

정현은 29일(한국시간)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에서 29위에 올랐다.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한 정현은 랭킹 포인트 720점을 추가해 종전 58위에서 29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역대 한국 선수 최고 세계랭킹이다. 이전 최고랭킹은 2007년 US오픈 16강에 오른 이형택(42·은퇴)의 36

위였다.

정현은 호주오픈에서 알렉산드르 즈베레프(21·독일·5위)와 노바 조코비치(31·세르비아·13위) 등 강적을 연달아 꺾으며 한국에 ‘정현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테니스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4강 진출의 신화를 일궜다.

종전 한국 선수의 최고 성적은 1981년 US오픈 여자 단식 이덕희(65·은퇴), 2000년과 2007년 US오픈 남자 단식 이형택의 16강이었다.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아시

아 선수 중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건 선수는 니시코리 게이(29·일본)로 27위다.

정현과는 두 계단 차이여서 아시아 선수 최고 세계랭킹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라파엘 나달(32·스페인)이 세계랭킹 1위를 굳게 지켰고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로저 페더러(37·스위스)가 2위를 유지했다.

호주오픈 준우승자 마린 칠리치(30·크로아티아)는 6위에서 3위로 떨어졌고,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7·불가리아)가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다.

권순우(21·전국체대) 178위, 이덕희(20·서울시청)가 205위에 올랐다.

‘평창 점점 성공적’ 최다빈 “점프 편해져...올림픽 즐길 것”

“현재 큰 부상도 없는 상태...컨디션 유지하고 싶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최종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점검을 마친 최다빈(18·수리고)이 “이제 점프를 한층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평창올림픽 실전 점검차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최다빈은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다빈은 전날 대만 타이베이에서 막을 내린 4대륙선수권대회에서 190.23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ISU 공인 개인 최고점(191.11점)에 불과 0.88점 모자란 점수였다. 부츠 문제로 인한 발목 부상 이후 가장 좋은 점수다.

지난해 어머니의 별세와 발에 맞지 않는 부츠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최다빈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최다빈은 “올 시즌 내내 부진해 이번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 연습 때 완벽하게 하려 노력했는데 실전에서 연습한 만큼 나와 만족했다”며 “점점차 나신 대회인데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고 전했다.

올 시즌 내내 부츠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최다빈은 왼쪽에 2년 전에 신었던 부츠를, 오른쪽에 지난해 신었던 부츠를 신는 것으로 일단 문제를 해결했다.

최다빈은 “부츠에 적응을 잘 해 가고 있다. 2년 전 것이기는 하지만 발목 부상도 없어졌다”며 “스케이팅 부츠 굽이 달라서 적응하려 해도 굽 높기 때문에 점프가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신었던 부츠로 바꾸니 편해졌다. 점프도 더 편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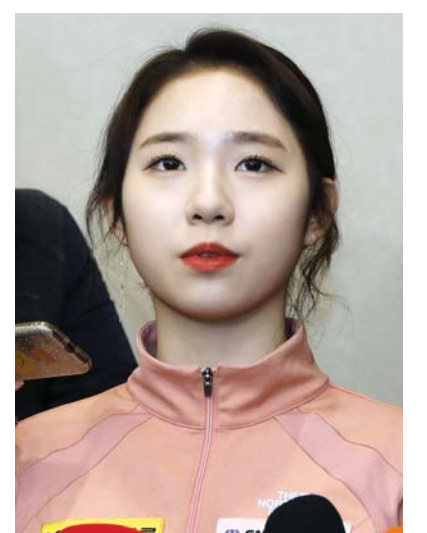
이어 “현재 큰 부상도 없는 상태라 올림픽까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다빈은 “평창올림픽은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의 (김)연아 언니를 보고 새롭게 꾸겨 된 꿈이다. 꿈의 무대에 출전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올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출전하게 돼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올림픽 출전만으로 감사하다. 잘하든 실수하든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다. 자국에서 하다보니 부담되고 긴장될 것 같은데 즐기면서 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에서 후반 점프 요소에서 점수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다빈과 함께 평창올림픽에 나서는 김하늘(16·평촌중)도 이번 대회에서 총 173.10점으로 6위를 차지, 최종 점검을 마쳤다. 그는 자신의 ISU 공인 개인 최고점(155.75점)을 17.35점 끌어올렸다.

김하늘은 “쇼트프로그램에서 실



수를 하지 않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통해 프리스케이팅에서 마지막 그룹에 들어간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관중이 많은 곳에서 연기하는 것이 처음이라 프리스케이팅 때 많이 긴장했다. 그래서 첫 번째 점프를 실수한 것 같다”며 “연습 때에도 첫 번째 점프를 실수한 적이 없어 당황했다. 하지만 이후 구성요소에 집중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시니어 무대 데뷔전을 치른 김하늘은 “즐거려고 노력했다. 올림픽에는 더 많은 관중이 있을 것이라 즐기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하늘은 “올림픽에서 연습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연경 소속팀=우승팀’...4개국 리그 우승 주역 대기록

한국·일본·터키·중국서 우승 경험

배구 여제 김연경(30·상하이)이 네 나라에서 우승을 경험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상하이는 27일 중국 상하이 루완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 여자 배구 슈퍼리그 2라운드 라오닝과 홍콩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23, 25-20, 25-22)으로 승리하며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상하이의 17년 만의 정규리그 우승에는 김연경이 있었다. 김연

경은 이날 입팀 통틀어 가장 많은 18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김연경은 이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에서 우승을 거머쥔 김연경은 4개국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2005년 흥국생명을 통해 프로 데뷔한 김연경은 V리그에서 세 번 우승(2005~2006, 2006~2007, 2008~2009)을 이뤄냈고 일본 JT 마베리스 시절에는 2010~2011 시



즌 팀을 정상에 올려놨다. 이후 유럽 최고 무대인 터키 리그로 진출해 6시즌 간 활약하며 당시 소속팀 페네르바체에 리그 우승 2회(2014~2015, 2016~2017) 터키 컵 2회(2014~2015, 2016~2017) 유럽배구연맹(CEV) 챔피언스리그 1회(2011~2012) 우승을 안겼다.